

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오승은(吳承恩)**

이승연(李承燕)***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 남녀 집단에서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 간의 관계가 냉담-무정서 특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6개 중학교 1-3학년 53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마음읽기는 가해 및 방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녀 모두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는 많이, 방어행동은 적게 보였으며, 여학생은 간접적 가해도 많이 보였다. 한편, 남녀 모두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 경우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직접적 가해를 더 많이 보였으나,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할 경우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은 증가된 방어행동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희박한 냉담-무정서 특성에 주목하고,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를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또래괴롭힘,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

I. 서론

또래괴롭힘(bullying)이란 힘의 불균형에 의해 한 학생이 한 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현상이다(Olweus, 1991). 청소년기에 또래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또래괴롭힘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

* 본 논문은 오승은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해자건 피해자건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Baldry & Farrington, 2005; Kumpulainen, 2008)에서 또래괴롭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래괴롭힘을 포함한 공격성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공격적인 아동이 사회적 단서 사용에 서툴고,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등 부족한 사회인지 능력으로 인해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혀 왔다(Crick & Dodge, 1994; Randall, 1997). 그러나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사회인지 능력 결함은 반응적 공격자(reactive aggressor)에게서만 나타날 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격성을 사용하는 주도적 공격자(proactive aggressor)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도적 공격자는 주로 반응생성 및 결정 단계에서 결함을 보인다고 밝혀졌다(Sutton, Smith, & Swettenham, 1999a).

또래괴롭힘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약자를 이용하는 주도적 공격성의 한 형태(Carney & Merrell, 2001; Griffin & Gross, 2004)임을 감안해 볼 때, 또래괴롭힘을 행하는 아동들이 타인의 마음상태를 유추하는 사회인지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정적으로, Sutton, Smith, 그리고 Swettenham(1999b)의 연구에서 피해경험이 없는 주도적 가해아들이 타인의 믿음, 의도, 바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그들이 결코 사회적 능력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행동이 사회인지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이는 후속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10; Gasser & Keller, 2008), 국내연구에서도 가해아가 피해아보다 더 나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혜리, 이진혜, 2006).

이러한 마음읽기 능력은 남아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여아의 가해행동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Caravita et al., 2010), 이는 아마도 신체적 폭행이나 언어적 헐박 같은 직접적 괴롭힘 외에 여아들이 주로 보이는 간접적 형태의 괴롭힘, 즉, 소문 퍼뜨리기, 이간질, 사회적 배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직접적 가해아가 간접적 가해아보다 우울이나 외현화 증상을 더 많이 겪는 등 서로 다른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인다는 연구(Prinstein, Boegers, & Vernberg, 2001)에도 불구하고, 또래괴롭힘 연구에서 가해행동의 유형을 구분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 마찬가지로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직접적, 간접적 가해행동을 나누어 보지 않아(예, 송경희, 이승연, 2010; Caravita et al., 2010) 제한점을 가진다. 반면, Jolliffe와 Farrington(2006)의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은 남아에게서는 폭력적 괴롭힘(직접적 괴롭힘과 유사)과, 여아에게서는 간접적 괴롭힘과만 관련이 있었다. 인지적 공감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마음읽기와 유사한 개념(Blair, 2005; Jolliffe & Farrington, 2006)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가해행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우수한 마음읽기 능력이 가해행동 뿐 아니라, 방어행동과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보다 높은 수준의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Gini, 2006; Monks, Smith, & Swettenham, 2005), 마음읽기는 남녀 모두에서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Caravita et al., 2010). 즉,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아는 것은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높은 수준의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 아동이 대인관계 문제, 빈약한 친구관계 및 반사회적 행동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Cuming & Repacholi, 1999; Dunn, 1995), 반대로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고, 또래들 간에 인기가 높고, 친사회적 행동도 많이 한다(Capage & Watson, 2001; Slaughter, Dennis, & Pritchard, 2002)는 사실로 더욱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마음읽기가 반사회적 또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조절변인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중 정서적 공감은 마음읽기 능력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방어행동과 모두 관련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주목해 온 대표적 변인이다. 많은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들이 공감의 하위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반적인 공감훈련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이해경, 김혜원, 2000;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 2008; Kaukiainen, Björkqvist, Österman, & Lagerspetz, 1996; Richardson, Hammock, Smith, Gardner, & Signo, 1994), 연구의 진전과 함께 공감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남이 밝혀졌다. 즉,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이 남녀 모두에서 가해행동과 정적 관계로 보고되기도 하고, 남학생에서만 부적 관계로 보고되기도 하는 등 그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타인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정서적 공감은 가해행동과는 부적 관계, 방어행동과는 정적 관계가 있음이 일관되게 밝혀졌다(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09; Espelage, Mebane, & Adams, 2004; Kaukiainen et al., 1999). 이에 따라 정서적 공감은 또래괴롭힘 연구 및 개입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은 Caravita 등(2010)의 연구에서 남학생 집단에서만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사이를 조절하였고, 남녀 모두에서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사이는 조절하지 못하였다.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춘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공감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사이를 매개하였다. 또한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간의 관계에서 남녀 모두 정서적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방어행동 사이에 개입하는 또 다른 잠재적 조절변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냉담-무정서 특성(callous-unemotional traits)은 성인의 정신병질(psychopath)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Essau, Sasagawa, & Frick, 2006), 공감능력의 결여, 죄책감의 결여, 제한된 정서 표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타인 이용 등과 같은 특징적인 정서적, 대인관계적 양식을

일컫는다(Frick & Dickens, 2006). 사회에 대한 정신병질의 폐해로 인해, 연구자들은 정신병질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개입하고자 하였으며, 아동·청소년기의 냉담-무정서 특성이 성인기의 정신병질 및 반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발견하였다(Frick & White, 2008).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한 아동·청소년은 평균보다 높은 지능과 조망수용 능력에도 불구하고(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 Saleskin, Neumann, Leistico, & Zalot, 2004), 공감적 관심이나 도덕적 추론에서의 결함(Fisher & Blair, 1998; Pardini, Lochman, & Frick, 2003), 낮은 정서적 반응성, 타인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정서적 결함을 보인다(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Stevens, Charman, & Blair, 2001). 또한 두려움 결핍(fearlessness), 높은 수준의 자극 및 보상추구 경향성을 보이며(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처벌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신경을 덜 쓴다(Fisher & Blair, 1998; Frick et al., 1999; Pardini et al., 2003). 이러한 냉담-무정서 특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유전적 요인, 낮은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수준,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준과 같은 신경학적 기능상의 문제, 낮은 불안 수준과 같은 기질적/성격적 요인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Larsson, Andershed, & Lichtenstein, 2006; Loney, Butler, Lima, Counts, Eckel, 2006; Young, Fox, Zahn-Waxler, 1999).

많은 연구들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과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rick & Dickens, 2006). 그럼에도 이러한 냉담-무정서 특성이 청소년 수용시설에 수감된 표본뿐 아니라(Caputo, Frick, & Brodsky, 1999; Silverthorn, Frick, & Reynolds, 2001) 일반 청소년 표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ssau et al., 2006; Frick, Bodin, & Barry, 2000). 실제로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Fanti, Frick, 그리고 Georgiou(2009)의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피해는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일반 중학생 대상의 다른 연구(Viding, Simmonds, Petrides, & Frederickson, 2009)에서도 냉담-무정서 특성은 간접적 가해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직접적 가해는 정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은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 냉담-무정서 특성이 또래괴롭힘을 포함한 여러 반사회적 행동들과 관련되며(Frick et al., 2000),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관련성을 갖는다(Viding et al., 2009)는 연구결과들은 냉담-무정서 특성이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는 정적 관련성, 방어행동과는 부적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냉담-무정서 특성을 통제하자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11, 12세 일반 학생들의 직접적/간접적인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Muñoz, Qualter, 그리고 Padgett(2011)의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또래괴롭힘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공감능력 이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냉담-무정서

특성이 또래괴롭힘 현상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과연 공감능력, 특히 정서적 공감처럼 조절 변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성이 다양한 정서적 결합(Blair et al., 2001; Loney et al., 2003; Stevens et al., 2001)과 관련되는 반면,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과 조망수용 능력처럼 인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 Salekin et al., 2004)는 사실은 냉담-무정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정서적 공감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마음읽기 능력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로 정신병질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마음읽기 능력에는 결함을 보이지 않으나 손상된 정서적 공감능력을 보인다는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Blair, 2005).

따라서 냉담-무정서 특성과 마음읽기 능력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또래괴롭힘 가해 및 방어행동과 서로 상반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냉담-무정서 특성이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또는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가능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강한 냉담-무정서 특성은 마음읽기 능력과 가해행동 간의 관련성을 높일 것이고, 약한 냉담-무정서 특성은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다. 보통 가해행동이 남아에게서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지만(Khoury-Kassabri, Benbenishty, Astor, & Zeira, 2004; Whitney & Smith, 1993) 간접적 가해를 따로 고려했을 시에는 여학생의 간접적 가해가 남학생의 직접적 가해 못지않게 높다는 연구도 있다(Crick & Grotpeter, 1995; Olweus, 1994). 마음읽기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양혜영 외, 2008),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Viding et al., 2009).

이상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해행동의 유형을 직접적 가해와 간접적 가해로 구분하여 여아의 공격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며, 성별에 따라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6개 중학교 1-3학년(M=13.74세, SD=.70)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또래괴롭힘이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빈번하며(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Caravita et al., 2009), 마음읽기 능력과 냉담-무정서 특성(Dadd et al., 2009)간 관련성이 청소년기 초기에 확실히 해지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이 늘어나므로, 마음읽기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들의 순서를 달리하여 A, B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마음읽기 과제의 경우, 각 에피소드의 내용을 녹음한 CD, 에피소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전체 설문 소요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배부된 총 60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6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자 183명(33.4%), 여자 356명(65.0%), 총 5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가해, 피해, 방어행동

또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최은숙(1999)의 또래괴롭힘 척도, 이춘아(2001)의 또래 공격성 척도를 참고하여 김미경(2006)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폭행이나 언어적 협박을 포함한 직접적 가해(10), 친구관계 철수 및 사회관계 배제와 같은 간접적 가해(8), 직접적 피해(10), 간접적 피해(8)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피해경험을 함께 측정한 것은,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의 높은 관련성으로 인해(송경희, 이승연, 2010; Fanti et al., 2009) 피해경험을 통제한 순수한 가해를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은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이 고안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를 바탕으로 서미정(2008)이 구성한 32문항의 척도 중 방어행동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방어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경(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직접적 가해 .80, 간접적 가해 .83, 직접적 피해 .75, 간접적 피해 .8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 .82, .84, .91로 나타났다. 방어행동 척도의 경우, 중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 .89의 내적합치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2) 마음읽기 능력

마음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현옥(2007)이 사용한 반구조화 형식의 마음이론 과제 중 2차 순위 틀린 믿음 과제 1가지, 모호한 상황 과제 1가지, 말의 숨은 의미 파악 과제 2가지, 헛디딤(faus pax) 과제 2가지로 축소 구성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주어지고, 에피소드별로 2-6개 정도의 주관식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행연구들(김아름, 2009; 송경희, 이승연, 2010; 최현옥, 2007)의 채점 체계에 따라 0-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주인공의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답한 경우 점수가 주어졌으며, 그렇지 않고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언급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한 경우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마음읽기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와 미리 훈련받은 발달심리전공 석사생 한 명이 채점하여 평정자간 일치도(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99로 나타났으며, 평정자간 채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두 명의 평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3) 냉담-무정서 특성

Frick(2003)이 개발한 냉담-무정서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를 이중 역번역하여 번안한 뒤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냉담(Callous) 11문항, 무관심(Uncaring) 8문항, 무정서(Unemotional) 5문항의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가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교회전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선행연구들(Essau et al., 2006; Fanti, et al., 2009)과 동일한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일반 청소년 군을 대상으로 한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10번 문항("나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통제하도록 두지 않는다.")이 전체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10번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그 결과 내적합치도는 .7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2011년 4월 한 달 동안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 t검증, Fisher's Z test,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t검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냉담-무정서 특성($t=4.41, p<.000$), 직접적 가해($t=4.03, p<.000$), 피해경험($t=3.83, p<.000$)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t=-4.81, p<.000$)은 남학생 보다 우수하였으며, 간접적 가해($t=-2.17, p<.05$)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어행동의 경우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남녀별 평균 및 성차검증

변인	남 ($N=183$) <i>M(SD)</i>	여 ($N=356$) <i>M(SD)</i>	<i>t(df)</i>	<i>p</i>
마음읽기	17.30(3.40)	18.82(3.54)	-4.81(539)	.000
냉담-무정서 특성	50.00(6.39)	47.38(6.62)	4.41(539)	.000
직접적 가해	17.96(5.10)	16.17(4.77)	4.03(539)	.000
간접적 가해	12.76(4.29)	13.64(4.58)	-2.17(539)	.030
피해경험	25.01(8.88)	22.24(5.85)	3.83(265.43)	.000
방어행동	12.07(4.85)	11.47(4.90)	1.33(539)	.183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남녀에서 상관의 전체적인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녀 모두,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남: $r=-.17, p<.05$; 여: $r=-.22, p<.01$)은 경미하지만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냉담-무정서 특성과 직접적 가해(남: $r=.45, p<.01$; 여: $r=.32, p<.01$), 간접적 가해(남: $r=.39, p<.01$; 여: $r=.30, p<.01$), 피해경험(남: $r=.30, p<.01$; 여: $r=.17, p<.01$)은 정적 상관, 방어행동(남: $r=-.16, p<.05$; 여: $r=-.31, p<.01$)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직접적 가해와 간접적 가해(남: $r=.59, p<.01$; 여: $r=.60, p<.01$), 피해경험(남: $r=.30, p<.01$; 여: $r=.33, p<.01$)간 정적 상관, 간접적 가해와 피해경험(남: $r=.39, p<.01$; 여: $r=.32, p<.01$)간 정적 상관이 나타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남녀별 상관분석

		1	2	3	4	5	6
1. 마음읽기	남	1					
	여	1					
2. 냉담-무정서 특성	남	-.17*	1				
	여	-.22**	1				
3. 직접적 가해	남	.09	.45**	1			
	여	.05	.32**	1			
4. 간접적 가해	남	.05	.39**	.59**	1		
	여	.03	.30**	.60**	1		
5. 피해경험	남	.00	.24**	.30**	.39**	1	
	여	-.04	.17**	.33**	.32**	1	
6. 방어행동	남	.04	-.16*	-.03	-.11	.09	1
	여	.13*	-.31**	-.10	-.13*	.10	1

*p < .05, **p < .01

한편 몇몇 변인에 있어서는 상관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와 방어행동($r=.13, p<.05$), 간접적 가해와 방어행동($r=-.13, p<.05$)간에 경미하지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Fisher's Z검증 결과, 냉담-무정서 특성과 방어행동 간 부적 관련성은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Z=1.74, p<.05$).

3. 마음읽기와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1) 직접적 가해에 대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마음읽기와 직접적 가해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남녀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순수하게 직접적 가해를 예측하기 위해, 먼저 피해경험과 간접적 가해를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1단계에 통제변인인 피해경험과 간접적 가해, 2단계에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 3단계에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예측변인들과 상호작용항 간의 가능한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변인은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Aiken & West, 1991). 표준점수를 사용하였지만,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구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표준화 계수(B)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표준화 계수(β)를 사용하게 될 경우, 상호작용항은 예측변인 각각을 표준화 한 값의 곱이 아니라 그 표준화 점수들의 곱을 다시 표준화한 값이 되어 단순회귀선을 구할 때 계산의 어려움이 생기고 해석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Friedrich, 1982, Aiken & West, 1991에서 재인용).

남학생의 경우, 피해경험과 간접적 가해를 통제했을 때, 마음읽기는 직접적 가해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는 증가하였다($\beta=.28, p<.001$).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 간의 상호작용($B=.35, p<.05$) 역시 유의하였으며, 이는 전체 설명량 44.3% [$F(1,177)=26.42, p<.001$] 중 약 2%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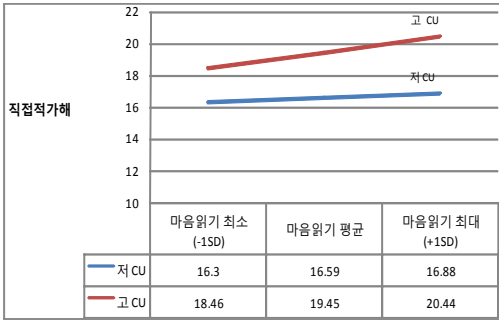
<표 3> 직접적 가해에 대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직접적 가해			
		B	β	R2	$\Delta R2$
남	1 피해경험 간접적 가해	.43	.09	.36	.36***
		2.85	.56***		
	2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	.62	.07	.42	.06*
		1.42	.28***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35	.07*	.44	.02*
	여	1 피해경험 간접적 가해	.74	.15***	.39
2.65			.56***		
2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		.37	.08	.41	.02***
		.78	.16***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27	.07*	.4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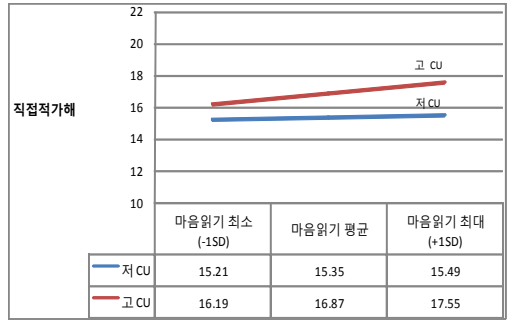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여학생의 경우에도 마음읽기는 직접적 가해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는 증가하였다($\beta=.16, p<.001$).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B=.27, p<.05$)도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량 42.8% [$F(1,350)=49.84, p<.001$] 중 약 2%를 추가 설명하였다.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냉담-무정서 특성의 고저에 따라 단순회귀선을 구하였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 기울기는 $B=.99(t=2.27, p<.05)$ 로 유의하였으나, 냉담-무정서 특성이 낮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다($B=.29, n.s$).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직접적 가해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B=.68, t=2.46, p<.05$)에만 마음읽기가 직접적 가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낮을 때($B=.14, n.s$)에는 마음읽기와 직접적 가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그림 1] 남학생의 마음읽기, 직접적 가해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그림 2] 여학생의 마음읽기, 직접적 가해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2) 간접적 가해에 대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마음읽기와 간접적 가해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 방법은 동일하나, 이번에는 피해경험과 직접적 가해가 통제 변인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피해경험과 직접적 가해를 통제했을 때,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 모두 간접적 가해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는 간접적 가해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남학생과는 달리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간접적 가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5$).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3) 방어행동에 대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어행동의 경우 상관분석에서 직접적, 간접적 가해, 피해경험 모두와 관련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통제변인 투입 없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남녀 모두, 마음읽기는 방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할수록 방어행동이 증가하였다(남: $\beta = -.16, p < .05$, 여: $\beta = -.31, p < .001$).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 간의 상호작용($B = -.57, p < .01$)이 유의하였으며 전체 설명량 12% [$F(1,352) = 15.97, p < .001$] 중 약 2%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상호작용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그림 3 참조), 여학생의 냉담-무정서 특성이 낮을 때($B = .94, t = 2.73, p < .01$)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방어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B = -.20, n.s.$).

<표 4> 간접적 가해에 대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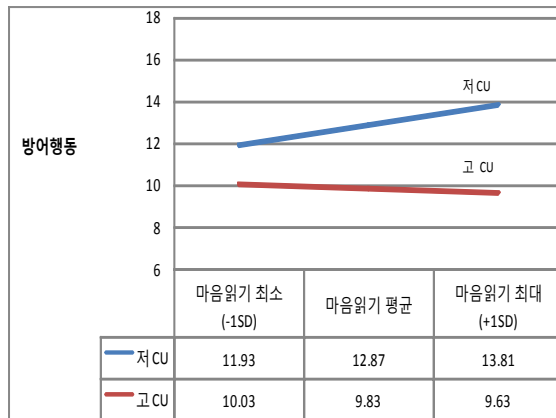
단계	예측변인	간접적 가해			
		B	β	R2	$\Delta R2$
남	1 피해경험	.99	.23***	.40	.40*
	직접적 가해	2.24	.52***		
	2 마음읽기	.12	.03	.41	.01
냉담-무정서 특성	.09	.13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49	-.11	.42	.01
여	1 피해경험	.59	.13***	.38	.38***
	직접적 가해	2.58	.56***		
	2 마음읽기	.01	.00	.39	.01*
냉담-무정서 특성	.51	.11*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09	.02	.39	.00

*p < .05, **p < .01, ***p < .001

<표 5> 방어행동에 대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방어행동			
		B	β	R2	$\Delta R2$
남	1 마음읽기	.03	.01	.03	.03*
	냉담-무정서 특성	-.79	-.16*		
2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01	.00	.03	.00
여	1 마음읽기	.37	.08	.10	.10***
	냉담-무정서 특성	-1.52	-.31***		
2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57	-.14**	.12	.02**

*p < .05, **p < .01, ***p < .001



[그림 3] 여학생의 마음읽기,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이 가장 빈번한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이라는 상반된 결과와 관련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냉담-무정서 특성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역할을 남녀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이 지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가해행동을 직접적 가해와 간접적 가해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학생이, 마음읽기 능력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을 포함하여 정신병질이 남학생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Essau et al., 2006;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이 우수하다는 선행연구(송경희, 이승연, 2010; 양혜영 외, 2008) 결과와 일치한다. 냉담-무정서 특성은 생물학적, 신경학적 원인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가 냉담-무정서 특성의 성차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Loney et al., 2006). 한편, 여자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은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적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간접적 가해행동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역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송경희, 이승연, 2010; Crick & Grotpeter, 1995). 여자의 경우 신체적 공격성보다는 간접적인 관계적 공격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Prinstein et al., 2001).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피해경험 간에 서로 정적인 상관이 보고되어 한 유형의 가해행동 시 다른 유형의 가해행동도 할 가능성이 크며(Crick & Grotpeter, 1995; Kaukiainen et al., 1999) 가해와 피해를 중복하여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Gasser & Keller, 2008). 한편, 여학생의 간접적 가해와 방어행동 간에 매우 경미한 부적 상관을 제외하고는,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간에는 관련성이 없었다.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간 부적 상관은 송경희, 이승연(2010) 연구에서도 여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가해행동을 한다고 해서 방어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에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경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Caravita, et al., 2010; Gini, 2006)을 통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바이다. 한편, 선행연구들(Frick et al., 2000;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과 유사하게,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녀 모두 직접적, 간접적 가해와 정적 상관, 방어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냉담-무정서 특성과 방어행동과의 부적 관계는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더 컸으며, 방어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냉담-무정서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여학생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성과 마음읽기 능력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Muñoz 등(2011)의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이 마음읽기와 유사한 개념인 인지적 공감과 부적 관련성이 있었던 것

과 유사하다. 그러나 Anastassiou-Hadjicharalambous와 Warden(2008)은 일반 집단과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한 품행장애 집단의 마음읽기 능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고, 냉담-무정서 특성과 마음읽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어 재검증이 필요하다.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 행동 간에 냉담-무정서 특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마음읽기는 성별에 상관없이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을 모두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마음읽기 자체로는 가해자와 방어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Gasser & Keller, 2008; Gini, 2006). 그러나 이는 9-11세 아동들의 경우 마음읽기가 남녀 모두의 방어행동, 남학생의 가해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했던 Caravita 등(201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연령이 13.74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더 어린 연령에서는 마음읽기 자체가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을 예측할지 몰라도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괴롭힘 행동에 있어 마음읽기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해 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해행동을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로 나누고 있지 않아 마음읽기 능력이 남녀 청소년의 직접적, 간접적 가해 모두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직접적 가해행동을 정적으로, 방어행동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형태의 또래괴롭힘에 주로 가담하며, 친사회적 행동은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Fanti et al., 2009;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 여학생의 경우에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간접적 가해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냉담-무정서 특성은 그들의 주된 공격성 양식인 간접적 가해(Crick & Grotpeter, 2005; Olweus, 1994)를 통해 표출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성과 직접적 가해행동의 관계는 남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남: $\beta = .28$ vs. 여: $\beta = .16$), 냉담-무정서 특성과 방어행동의 관계는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남: $\beta = -.16$ vs. 여: $\beta = -.31$).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개입전략이 남학생의 직접적 가해행동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방어행동을 늘리는데 보다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는 남녀 모두 마음읽기와 직접적 가해 사이에서 유의하였다. 즉,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 때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직접적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타인의 의도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도, 이를 타인의 정서와 연결 지어 생각지 못하고 타인의 정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마음읽기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에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

다. 즉, 여학생들은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할 때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방어행동을 더 많이 했다.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하다면 마음읽기 능력은 방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더 많은 가해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냉담-무정서 특성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 마음읽기가 반사회적 또는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서적 공감에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관계를 조절했던 선행연구(Caravita et al., 2010)와는 달리,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았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단순히 정서적 공감능력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Muñoz et al., 2011)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Caravita et al., 2009)에서 정서적 공감이 여학생의 방어행동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냉담-무정서 특성은 여학생 집단에서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정서적 공감능력이 우수한 여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감이 또래괴롭힘과 같은 사회적 행동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인 냉담-무정서 특성은 또래괴롭힘 행동에서의 개인차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 또한 시사한다.

한편, 여학생보다 또래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남학생의 경우(Padilla-Waker & Carlo, 2007; Sim & Koh, 2003) 방어행동이 또래의 기준이나 또래에 의한 수용 여부에 의해 더 많이 영향 받을 수 있다. Caravita 등(2010)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정적 관계는 정서적 공감 뿐 아니라, 또래로부터의 선호도에 의해 조절되었다. 김은아,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공감능력이 높아도 학급규준이 또래괴롭힘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남자 중학생은 방어행동을 덜 보였다. 또래로부터의 선호도나 또래 기대, 학급규준(Salmivalli & Voeten, 2004; Rigby & Johnson, 2006) 같은 환경적 변인이 정서적 공감이나 냉담-무정서 특성 등 개인내적 변인보다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하여 냉담-무정서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시사한다. 냉담-무정서 특성이 또래괴롭힘 뿐 아니라 훨씬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며 성인기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Frick & Dickens, 2006)을 고려해볼 때 냉담-무정서 특성에 대한 조기 식별 및 개입은 매우 중요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은 필수적이다.

남학생에 있어서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한 것이 그 자체로 방어행동을 늘리기는 하지만,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이 높을 경우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 정적 관련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에 비추어(Caravita et al., 2010),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감 훈련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이 직접적 가해의 감소와 방어행동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서적 공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 오히려 냉담-무정서 특성을 구성하는 다른 측면들, 즉, 죄책감 결핍이나 제한된 정서 표현,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의 부족,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냉담-무정서 특성은 기질적 특성이긴 하지만 온정적인 양육과 바람직한 훈육, 따뜻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Frick, Kimonis, Dandreaux, & Farell, 2003; Pardini, Lochman, & Powell, 2007)가 있으므로, 효과적 개입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지지적이며 온정적인 양육과 타인에 의해 수용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벌에 반응하지 않는 냉담-무정서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행동에 대한 처벌 대신 친사회적 방어행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체계를 학교장면에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또래괴롭힘의 예방과 개입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Osher, Bear, Sprague, & Doyle, 2010). 긍정적 행동지원체계는 또래집단이나 학급의 규준을 또래괴롭힘에 반대하고 방어행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희박한 냉담-무정서 특성에 주목하였으며, 마음읽기 능력이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를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여학생의 반사회적,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냉담-무정서 특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여학생의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에 대하여 직접적 가해와 간접적 가해로 세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남학생과는 달리 냉담-무정서 특성이 여학생의 간접적 가해행동에만 예측력을 가진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학생들의 간접적 가해를 설명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도구만을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냉담-무정서 특성이거나 가해, 방어행동과 같은 변인들은 자기보고 시 사회적 바람직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보고나 교사보고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샘플 수집과정에서 남학생 비중이 매우 낮았으며 학교장면의 일반군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비를 보다 유사하게 구성하여 성차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며, 또래괴롭힘 행동이나 냉담-무정서 특성이 더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임상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이 방어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크지 않았다는 것과, 마음읽기 능력과 남녀 학생의 간접적 가해, 남학생의 방어행동 간 관계를 조절하는 다른 변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의 역할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아, 이승연 (2011). 남녀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방어행동과 공감, 자기효능감, 학급규준에 대한 믿음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59-77.
- 김혜리, 이진혜 (2006). 마음읽기 능력과 괴롭힘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2), 1-19.
- 송경희, 이승연 (2010).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도덕적 이탈, 도덕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양미진, 김은영, 이상희(2008).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려증진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38.
- 양혜영, 김혜리, 김경미, 구재선, 정명숙, 박은혜 (2008). 초등학교의 마음이론과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1), 31-47.
- 이해경, 김혜원(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nastassiou-Hadjicharalambous, X., & Warden, D. (2008). Cognitive and affective perspective-taking in conduct-disordered children high and low on callous-unemotional trait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2, 16-26.
- Baldry, A. C., & Farrington, D. P. (2005). Protective factors as moderators of risk factors in adolescence bullying.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8, 263-284.
- Baron-Cohen, S. (2005). The empathizing system: A revision of the 1994 model of the mindreading system. In B. J. Ellis & D. F. Bjorklund(Eds), *Origins of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Barron, K. E., Frazier, P. A., & Tix, A. P. (2004). Testing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115-134.
- Blair,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 698-718.
- Blair, R., Colledge, E., Murray, L., & Mitchell, D. (2001). A selective impairment in the processing of sad and fearful expression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491-498.

- Capage, L., & Watson, A. C.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ory of mind, aggressive behavior and social skills in young childre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 613-628.
- Caputo, A., & Frick, P. J., & Brodsky, S. (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Potential mediating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a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 338-356.
- Caravita, S. C. S., Di Blasio, P. & Salmivalii, C. (2010). Early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bullying: Is ToM involved?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0*(1), 138-170.
- Caravita, S. C. S., Di Blasio, P. D., & Salmivalli, C. (2009).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empathy and social status on involvement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 140-163.
- Carney, A. G., & Merrell, K. W. (2001). Bullying in schools: Perspective on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an international problem.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2*, 364-38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umming, S., & Rapacholi, B. (1999). *Is there link between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their theory of mind?* Poster presented at the 11th Australian Human Development Association Conference, Sydney, Australia.
- Dadds, M. R., Hawes D. J., Frost A. D., Vassallo, S., Bunn, P., Hunter, K., & Merz, S. (2009). Learning to 'talk the talk': the relationship of psychopathic traits to deficits in empathy across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599-606.
- Dunn, J. (1995). Children as psychologist: The later correlat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emotions and other minds. *Cognition and Emotion, 9*, 187-201.
- Espelage, D. L., Mebane, S. E., & Adams, R. S. (2004). Empathy, caring, and bullying: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mplex associations. In D.L. Espelage & S.M. Swearer (Eds.),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37-61). Mahwah, NJ: Erlbaum.
- Essau, C. A., Sasagawa, S., & Frick, P. J. (2006).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ssessment, 13*, 454-469.
- Fanti, K. A., Frick, P. J., & Georgiou, S. (2009). Link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to

- instrumental and non-instrumental forms of aggress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Behavior Assessment*, 31, 285-298.
- Fisher, L., & Blair, R. (1998). Cognitive impairment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pathic tendencies in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511-519.
- Frick, P. J., Bodin, S., & Barry, C. (2000). Psychopathic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community and clinic-referred samples of children: Further development of the psychopathy screening device. *Psychological Assessment*, 12, 382-393.
- Frick, P. J., & Dickens, C. (2006). Current perspectives on conduct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8, 59-72.
- Frick, P.J., Kimonis, E.R., Dandreaux, D.M., & Farell, J.M. (2003). The four year stability of psychopathic traits in non-referred youth.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1, 713-736.
- Frick, P. J., Lilienfeld, S. O., Ellis, M., Loney, B., & Silverthorn, P.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psychopathy dimension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83-392.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359-375.
- Gasser, L., & Keller, M. (2008). Are the competent the morally good? Perspective taking and moral motivation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8, 798-816.
- Gini, G. (2006). Social cognition and moral cognition in bullying: What's wrong? *Aggressive Behavior*, 32, 528-539.
- Griffin, R. S., & Gross, A. M. (2004). Childhood bullying: Current empirical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379-400.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empathy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32, 540-550.
- Kaukiainen, A., Björkqvist, K., Lagerspetz, K., Österman, K., Salmivalli, C., Rothberg, S., & Ahlborn, A.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5, 81-89.
- Kaukiainen, A., Björkqvist, K., Österman, K., & Lagerspetz, K. (1996). Social intelligence and empathy as antecedents of different types of aggression.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 794, 364-366.

- Khoury-Kassabri, M., Benbenishty, R., Astor, R. A., & Zeira, A. (2004). The contributions of community, family, and school variables to student victimiz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 187-203.
- Kumpulainen, K. (2008). Psychiatric conditions associated with bully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0*, 121-132.
- Larsson, H., Andershed, H., & Lichtenstein, P. (2006). A genetic factor explains most of the variation in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221-230.
- Loney, B. R., Butler, M. A., Lima, E. N., Counts, C. A., & Eckel, L. A. (2006). The relation between salivary cortisol,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an adolescent non-referred sam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30-36.
- Loney, B. R., Frick, P. J., Clements, C. B., Ellis, M. L., & Kerlin, K.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impulsivity, and emotional processing in antisocial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139-152.
- Monks, C. P., Smith, P. K., & Swettenham, J. (2005).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eer victimisation in preschool: Social cognitive skills, executive function and attachment profiles. *Aggressive Behavior, 31*, 571-588.
- Muñoz, L. C., Qualter, P., & Padgett, G. (2011). Empathy and Bullying: Exploring the influe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42*, 183-196.
- Nickerson, A. B., Mele, D., & Princiotta, D.(2008). Attachment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roles as defenders or outsiders in bullying interaction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87-703.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program. In D.J. Pepler, & K.H. Rubin (Eds.), *The Developmental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47).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Long-term outcomes for victims and an effective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L.R. Huesmann(Ed.), *Aggressive Behavior: Current perspectives*(pp.97-130).
- Osher, D., Bear, G. G., Sprague, J. R., & Doyle, W. (2010). How can we improve school discipline? *Educational Researcher, 39*, 48-58.

- Padilla-Walker, L. M., & Carlo, G. (2007). Personal values as mediator between parent and peer expectation and adolescent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 538-541.
- Pardini, D., Lochman, J., & Frick, P. J.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 cognitive processes in adjudicated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364-371.
- Pardini, D., Lochman, J., & Powell, N. (2007). The Developmen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re there shared and/or unique predi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319-333.
- Prinstein, M. J., Boe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 479-491.
- Randall, P. (1997). Pre-school routes to bullying. In D. Tattum & G. Herbert (Eds.), *Bullying: Home, school, and community*. London: David Fulton.
- Richardson, R., Hammock, G. S., Smith, S. M., Gardner, W., & Signo, M. (1994). Empathy as a cognitive inhibitor of interpersonal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0*, 275-289.
- Rigby, K. & Johnson, B. (2006). Expressed readiness of Australian schoolchildren to act as bystanders in support of children who are being bullied. *Educational Psychology, 26*, 425-440.
- Salekin, R. T., Neumann, C. S., Leistico, A. M. R., & Zalot, A. A. (2004). Psychopathy in youth and intelligence: An investigation of Cleckley's hypothe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 731-742.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46-258.
- Silverthorn, P., Frick, P. J., & Reynolds, R. (2001). Timing of onset and correlates of severe conduct problems in adjudicated girls and boy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171-181.
- Sim, T. N., & Koh, S. F. (2003). A domain conceptualization of adolescent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 57-80.
- Slaughter, V., Denni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45-564.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 201-211.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T. (1999a). Bullying and 'theory of mind': A critique of the 'social skills deficit' view of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8*, 117-127.

Sutton, J., Smith, P. K., & Swettenham, T. (1999b). Social cognition and bullying: Social inadequacy or skilled manipulat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35-450.

Viding, E., Simmonds, E., Petrides, K. V., & Frederickson, N. (2009). The contribution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conduct problems to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471-481.

Whitney, I., & Smith, P. K. (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

Young, S. K., Fox, N. A., & Zahn-Waxler, C. (1999). The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empathy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189-1197.

* 논문접수 2011년 7월 29일 / 1차 심사 2011년 8월 26일 / 게재승인 2011년 9월 14일

* 오승은(吳承恩, Oh, SeungEun):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 e-mail : seung03@ewhain.net

* 이승연(李承燕, Lee, SeungYeon):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학교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텍사스 주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에서 학교심리학자로 2004-2006년 근무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관심분야는 학교폭력, 공격성, 우울과 자살, 재난 위기개입 등이다

* e-mail : sleel@ewha.ac.kr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Theory of Mind and Bullying / Defend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Moderation effec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Oh, SeungEun*
Lee, Seung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allous-unemotional(CU) traits moderate the relations between theory of mind(ToM) and direct/indirect bullying or defending behaviors. For this research, the self-report data of 539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 that regardless of gender, ToM predicted neither bullying nor defending. However, CU traits predicted direct bullying positively and defending behaviors negatively. Only among girls, CU traits also positively predicted indirect bullying. Above all, CU traits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ToM and direct bullying among both boys and girls, and between ToM and defending behaviors among girls. ToM led to more direct bullying only in the high level of CU traits. In addition, girls' ToM led to more defending behaviors only when their CU traits were weak.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bullying, theory of mind, callous-unemotional traits, direct bullying, indirect bullying, defending behaviors

*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